

로마현장을 살릴 오직 믿음과 완전복음

-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

하박국 2:4, 로마서 1:17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자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237나라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성취시키는 중요한 절대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전도의 편지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 66권 중에서 믿음과 복음에 대하여 가장 깊이있게 기록한 명작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때문이다. 특히, 복음과 율법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조차 로마서를 정확히 해석한 학자들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복음과 오직복음과 완전복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 시절 한 학기에 로마서 100번 읽기를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가, 지키지 말라는 건가.’ 헷갈린다.(웃음) 로마서에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도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복음이 증거 되어서 많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와 세상의 타락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직 믿음과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완전복음에 대하여 방향을 전해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오직복음을 이해하고 완전복음이 체질화된 모델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다.

1. 첫 번째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신자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당시 로마에는 온갖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고 있다. 바울 사도는 불신자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1) 그들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만물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데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마음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2)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우상과 귀신은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로마서 1장 23절이다.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바란다.

(3) 육신적으로는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동성애는 사회적 타락의 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 최고의 축복인 생육과 번성을 막는 사탄의 멸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4)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6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일과 연구를 꼼꼼히 하는 것과 체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순종, 불신앙적인 것과는 다르다.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분이 아니다. 또한, 불신자상태에 빠진 사람들과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2장 8절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두렵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께거리를 만든다. 복음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없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면 된다.

(5)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형식과 전통만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하여 꾸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3장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악한 욕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불신자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불신자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로마서에는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들이 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을 함께 읽겠다. 이 말씀들은 모두 암송해야 할 말씀들이다.

(1) 로마서 1장 17절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 로마서 3장 28절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4) 로마서 5장 8절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사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한다.

(5)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고 부활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복음이다.

3. 세 번째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는 모델적인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또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9가지 포인트이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전체가 삶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중요한 요점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하자.

(1) 로마서 12장 2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 틀을 새 틀로 바꿔야 한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된다. 현장에 가서 나의 응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 가정에 임한다. 증거가 누룩처럼 먼저 나간다.

(2) 로마서 12장 10절, 11절, 14절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복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

(3)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썬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말씀이 필요하며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4) 로마서 13장 1절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름부음을 받아야지 다윗, 요셉,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로마같이 타락한 현장을 살릴 수 있다. 현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먼저 따르면 결국에는 현장이 변화된다.

(5) 로마서 13장 7절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세상의 법을 기도하며 지키는 것이다.

(6) 로마서 14장 1절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

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적으로 병든 자, 약한 자, 영적문제 있는 자, 신앙이 늦게 자라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다.

(7) 로마서 16장 19절이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내용은 그냥 읽기 만해도 은혜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불러야하고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해야한다.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많이 거듭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직 믿음, 완전복음이 정리된 로마서라는 최고의 복음적인 콘텐츠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1.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다.

2. 복음을 받지 못한 로마인들과 237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4절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3.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4. 로마복음회라는 천명, 소명, 사명과 평생 도전해야 할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도 이 '로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은 나의 로마를 가져야지 행복하다.

5. 성령충만 받고 성령인도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뫼뫼(보호자), 3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동역자), 5절의 에베네도와 8절의 암블리아(사랑하는 자), 6절의 마리아와 12절의 버시(많이 수고한 자), 7절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친척), 10절의 이벨라(인정 받은 자), 23절의 가이오(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돌보는 자)이다.

나의 로마를 찾고 그 현장을 향해 일평생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로마서 16장과 같은 완전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천명, 사명,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 그 수준이 아니라 오직복음, 그것을 뛰어 넘어서 복음화 된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가정, 가문, 직장, 학교 현장과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만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